

# 圖書館奉仕 擴大에 關한 小考

—國立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의 奉仕機能을 中心으로—

金 世 翹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A. 韓國圖書館의 宿命

1900年代 初葉에 우리 나라에 近代의 圖書館은 一部 特殊目的이나 限定된 特殊階層의 要求를 充足시켜 주는 이른바 封建的 圖書館의 모습에서 脫皮하여 市民 大衆에게 開放되어 소극적이거나 一般文化社會의 變遷과 발마추워서 發展해 왔다. 解放과 더불어 國立圖書館이 생기고 도서관학교도 개설되고 도서관협회도 活動을 시작하였지만 國力の 貧弱과 政治의 混亂속에서 圖書館의 發展은 그 底力부터 미약하여 成果를 期待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陳痛속에서 六·二五를 치루었고 그 文化社會的 後遺症은 圖書館에도 미쳐서 도서관은 어느 期間동안 韓國文化社會의 孤兒 或은 異邦人 같이 되었다. 圖書館을 말하는 政治도 없었고 行政도 市民도 없었다. 1950年代에 이르러 뜻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圖書館이 忘却地帶에서 다시 社會에 表面으로 進出할 氣運이 감들 무렵 「Peabody」팀의 來韓에 刺戟되어 社會의 呼應이 적은 속에서도 圖書館社會의 基礎工事が 進行된 것도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1950年代 後半부터 1960年代, 約 10年동안 韓國圖書館은 크게 변모했다. 아직 解決하지 않으면 많을 問題를 內包한채 이제는 그 質과 量에 있어서 中進國의 水準에 이른 것은 決코 自謔自讚만은 아니다. 이렇게 短時日에 飛躍的 發展을 이룩한 圖書館은 다른 나라에는 그 例를 찾을 수 없다. 率直히 말해서 全體의인 面에서는 比較가 안되지만 圖書館奉仕의 어느 部分은 圖書館王國인 美國에서도 뒤지지 않고 있는 面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全體의인 面에서 볼 때 韓國의 圖書館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러한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고자 全國의 圖書館人들과 關係機關에서 무던히 努力했다. 그런데 1970年代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課題에 直面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圖書館의 基本整地作業을 미쳐 끝내기도 前에 새로운 緊急한 問題에 直面하고 있다. 이것은 實로 숨 가쁜 일이다. 圖書館奉仕機能의 擴大라는 새로운 世界圖書館의 潮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韓國의 圖書館은 飛躍에 또 飛躍을 언제나 強要 當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韓國圖書館의

宿命이다.

지난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開催된 國際會議은 우리 나라 圖書館發展史에 큰 意義을 가진 것이다. 이제 우리도 世界의 一流 圖書館人(그중의 몇사람은 世界의 圖書館에 影響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과 專問的인 對話를 交換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事實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서관」을 가졌다는 것과 그들과 討論할 수 있는 切實하고도 客觀的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몇해 前과 比較해 보면 實로 感慨가 無量하다.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다. 하나의 비존이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氣運에 拍車를 加하여 우리가 걸머진 그 宿命을 克服하는 일이 오늘에 있어서의 韓國圖書館人의 名譽로운 歷史的 使命이다.

## B. 韓國圖書館의 새로운 課題

### 1. 世界的 水準의 國立圖書館

우리 나라에는 國立圖書館이 두개 있다. 國立圖書館이 반듯이 하나라야 한다는 理論은 없다. 理想的으로 말하면 國立圖書館이 그 數가 많을수록 좋다. 적어도 財政的 面에서 그렇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國立圖書館의 보편적 使命을 達成함에 있어서 두개의 並立하는 國立圖書館이 그 財政에 있어서 그 人力에 있어서 重複되는 경우가 있다면 國家的 見地에서 무엇인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가 따른다. 國家文獻의 收集保存에 있어서 二次資料의 作成에 있어서, 綜合目錄의 作成에 있어서, 文獻의 國際交換問題에 있어서 또 納本制度에 있어서 重複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볼 때 하나의 낭비일 수도 있다. 나는 여기서 두개의 國立圖書館의 合併이라는 常識論을 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은 별다른 곤난이 露出되지 않는다 해도 먼 장래를 내다 볼 때 이러한 浪費性이 具體的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개의 國立圖書館의 合併이 아니라 一元化를 主張하고 싶다. 이 一元化는 制度上의 一元化가 아니라 奉仕의 一元化를 意味한다. 두개의 國立圖書館의 機能上의 有機性을 摸索해 보자는 것이다. 現在의 두개의 國立圖書館은 저마다의 機能을 發揮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奉仕의 一元化를 或은 奉仕의 有機性을 期할 수 있는 機能, 말하자면 國立圖書館合同委員會같은 有權의인 制度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國會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의 使命과 機能을 完全히 同一視하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國立圖書館의 機能을 擴大해서 即 廣義로 볼 때 合同委員會의 設置는 可能하다. 勿論이 委員會는 國家的 레벨이어야 한다. 現在의 國立中央圖書館과 國立國會圖書館이 並立한채 그 奉仕의 一元化를 期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나라 國立圖書館의 水準은 世界的인 것이 된다. 世界 一流의 國立圖書館의 出現은 우리 韓國圖書館人의 共通된 念願이 아닐 수 없다.

## 2. 國立圖書館에 期待하는 것

### a. 國家書誌와 綜合目錄

國家書誌와 綜合目錄은 서로 相關關係에 있다. 前者의 경우는 相當한 成果를 올리고 있지만 綜合目錄의 事業은 아직 그 出發點에서 있는 느낌이다. 國家書誌와 綜合目錄의 完成을 期함으로서 우리 나라 汎國家的 文獻情報의 開發과 檢索과 利用이 可能해진다. 國立圖書館에서 이 點에 關해서 非常한 關心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하루 速히 財政的, 人的資源의 확보를 期해서 이 일이 完遂되기를 바란다. 國家書誌와 綜合目錄事業은 國立圖書館外에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 b. 學位論文 檢索奉仕

이 問題에 있어서도 國會, 中央 兩國立圖書館에서 着着 그 事業을 推進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現在 各大學, 研究所에서 이에 對한 熱望이 크다. 一般의 으로 市中에 販賣 流布되지 아니하는 이 一次資料의 整理와 奉仕를 할 수 있는 곳은 現在로서는 國立中央, 國會圖書館 以外에는 없다. 美國의 University Microfilm Inc.와 같은 機關은 우리 나라로서는 아직 期待하기 어렵고 各大學에서는 그 大學의 論文以外의 奉仕는 不可能하다. 이런 일을 成功시키기 위해서는 各大學의 大學院이나 研究所의 協力을 받아야 하는데 美國의 國會圖書館이나 日本의 國會圖書館처럼 制度的으로 法制化할 수 있어야 그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이것은 Micro Film에 依해서 奉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宿願의 하나인 圖書館奉仕의 機械化가 併行해야 할 것이다. 學位論文檢索의 完全性을 期하기 위하여 다만 學位論文(Dissertation)의 收集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 몇가지 要件이 隨伴되어야 한다.

#### 1. Retrospective Search

學位論文의 世界性에 따라 各國에서 發行하고 있는 學位論文의 綜合目錄의 收集이 必要하다.

#### 2. Dissertation Index

筆者, 主題名, 標題에 依한 索引이 있어야 한다.

#### 3. Dissertation Abstracts

美國에서 2個月에 한번씩 나오는 줄르 알지만 우리도 情報의 抄錄이건 指示의 抄錄이건 抄錄이 나와야 한다. 論文抄錄은 大概의 경우 Author abstract로 된 것이 各大學의 大學院마다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完全히 收集해야 할 것이다.

#### 4. Copy Service

抄錄이나 原論文이나 復寫로 얻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美國의 University Microfilm Inc.에서는 Micro Film으로 奉仕하고 있다.

#### 5. Dissertation in Progress

이미 完成된 論文에 對한 情報뿐 만 아니라 現在 進行中인 論文에 對한 情報도 提供해 줄 수 있어야 한다. 大學에서 大學院 學生들이나 教授들이 自己가 쓰고 저 하는 論文의 Originality에 對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많은 時間과 努力을 消費하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더욱 切實하게 느껴진다.

#### 6. 圖書館相互協力體制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各大學, 研究所의 積極的인 協力이 要求되지만 한층 더 次元을 높여서 圖書館相互協力體制라는 데 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合理的인 일 것이다.

美國의 Farmington Plan이나 New England Deposit Library, Midwest Inter-Library Center 或은 Chicago의 John Crerar Library와 Newbery Library 그리고 Chicago Public Library 相互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協力體制가 다만 學位論文 收集을 위해서만 存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學位論文 收集檢索奉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볼 때 眞正한 圖書館活動을 期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國家的 水準에서 考慮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우리는 認識하게 된다. 國家的 配慮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圖書館은 바로 國立圖書館이다.

#### c. 著作權登錄簿(Registry of Copyright)

國家書誌作成이나 汎國家的 文獻保存, 綜合目錄 등의 國立圖書館의 基本的 使命을 다하기 위하여 著作權登錄事務가 國立圖書館에 移管되어야 한다. 美國 國會圖書館에서는 벌써 1870년에 이것을 實施하였고, 그러므로서 國會圖書館 機能強化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過去에 여러번 論議된 바 있으나, 아직도 그 實現을 못보고 現在로서는 그 曙光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國立圖書館은 國家機關이다. 國立圖書館員은 國家公務員이다. 國立圖書館에서 著作權問題를 다루지 못할 理由가 없다. 近者에 와서 政府

에서 많은 行政權을 下部機關에 移讓하고 있다. 이 機會에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 등장시켜서 解決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解決될 때 納本制度의 確立도 可能하고 앞에 말한 많은 필요한 二次資料의 作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中央官廳에서 著作權登錄事務를 꼭 해야 할 理由가 없다. 或 所屬官廳이 다르다는 理由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은 形式이고 行政의 으로 얼마든지 實現이 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d. 研究圖書館의 機能強化

理想的으로 말하면 國立圖書館은 圖書館이 할 수 있는 모든 奉仕가 다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圖書館의 規模나 藏書量 그리고 그 施設로 보아 Research(조사, 연구)의 機能이 더 強化되었으면 한다. 國立圖書館의 Research Section에 우리 나라 一流 學者들이나 一流 企業人, 一流 技術者들의 出入이 빈번해져야 하겠다. 이렇기 위해서 國立圖書館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데에 對해서는 여기서 屢屢히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다. 國立圖書館이 國家文獻情報의 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며 Research Center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좋은 大學圖書館이 많이 있기는 하나 國家的 水準(아카데미 크레벨이 아닌)의 Research를 할 수 있게 國立圖書館의 機能이 擴大되기를 바란다. 主題別 Research Library는 따로 따로 存在할 수 있겠으나 綜合的 Research는 國立圖書館에 期待할 수 있어야 理想的인 아닐까 생각한다. 유감스럽지만 현재의 우리 나라 國立圖書館은 아직 그 구실을 담당할 立場에 놓여있지 않다.

e. 市民에게 親近한 圖書館像

國立圖書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圖書館이 할 수 있는 모든 機能을 다 發揮하는 것이 理想이다. 奉仕의 對象도 汎國民의이라야 하겠다. 그런 意味에서 볼 때 盲人圖書館(Library for the blinds) 그리고 音樂圖書館(Music Library) 필름도서관(Film Library) 등의 施設도 國立圖書館으로서 關心을 가져야 할 줄 안다. 지금 당장에 이런 것이 實現될 수는 없어도 先進國을 指向해 나가는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先進 여러 나라와 다른 點은 그들은 圖書館은 우리의 것이라는 感覺이 투철한데 反해서 우리 나라는 圖書館은 나와는 關係가 없는 것이라는 固定觀念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우리 圖書館에 더 큰 責任이 있다. 스칸디나비아나 英國市民들 처럼 저자바구니를 든채로 圖書館에 들어가는 風景은 볼 수가 없다. 國立圖書館 뿐만 아니라 모든 圖書館이 市民社會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方途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施設不足으로 지금은 不可

能하겠지만 國立圖書館같은데서(國會나 中央 같이 位置가 좋은 도서관에서) 展示場을 마련하여 美術展覽會場을 提供한다던가 英國처럼 地方圖書館에서 土曜日 저녁마다 音樂鑑賞會를 開催할 수 있게 한다거나 地域社會의 會議場所를 提供한다는 등의 奉仕活動을 할 수만 있다면 圖書館과 市民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國立圖書館에 學者나 政治家나 事業家나 學生들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各界 各層의 人士들이 모이게 되는 날 우리 나라 圖書館은 生氣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C. 大學圖書館에 期待하는 것

韓國의 圖書館中에서 施設에 있어서나 藏書量에 있어서 그리고 奉仕量에 있어서 大學도서관이 가장 發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大學의 性格上 이것은 當然한 현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에도 改善되고 再考되어야 할 點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教授들이 大學圖書館에 對하여 어느 程度 期待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그 對答은 否定的이다. 大學生들은 또 얼마나 關心이 있는가 하면 悲觀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教授들이나 學生들이 그들의 期待를 充足시켜 줄 만큼 大學圖書館은 整備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原因이 있고 圖書館側에서 볼 때에는 圖書館에 備置되고 있는 資料가 무엇이 있으며 또 어느 程度 있는가에 對하여 그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圖書館의 利用法에 對하여 滿足할 만한 知識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對하여 Librarian들은 不平을 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은 相互間 그 責任을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教授들은 圖書館의 藏書를 利用하기보다 自己 自身の 藏書를 가지기를 熱望한다. 이것은 美國의 教授들과 그 生理에 있어서 다르다. 내가 본 範圍內에서는 美國의 大學教授들은 書齋에 自身の 藏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들은 모두 大學圖書館의 資料를 充分히 利用하고 있다. 韓國의 大學教授들은 自身の 圖書館을 書齋에 갖추고져 애를 쓰고 있는 느낌이 있다. 勿論 自身の 藏書를 利用하는 것이 圖書館의 冊을 利用하는 것보다 便利한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圖書館만큼 藏書量을 具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아도 當然한 일이다.

또 圖書館에서도 한 個人에게 相當한 期間동안 資料를 獨占시킬 수 없기 때문에 教授들의 立場에서 볼 때 너무 까다로운 여러 가지 制限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에도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다. 연체로 문제, 복본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대출기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느끼는 데에도 그들의 不平의 原因이 있다. 이것은 圖書館에 對한 認識의 差異에서 오는 것인데 圖書館으로서도 運營에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限度에서 이러한 不平을 덜게 해 줄 수 있는 配慮가 要望된다. 大學에서 圖書館은 가장 重要한 施設이다. 圖書館을 잘 利用하지 않는 教授나 學生이 많다면 이것은 아카데미의 使命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教授나 學生들에게 充分히 利用되지 못하는 圖書館이라면 아무리 큰 建物이건 아무리 많은 藏書이건 아무리 有能한 館長이나 司書가 있다 해도 그 圖書館은 失敗作이다. 圖書館은 다만 잘 利用될 때에만 그 存在意味가 있는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의 바람직한 方向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點을 強調하고 싶다.

### 1. 오리엔테이션의 強化

下級學校 時代에 圖書館利用에 對한 訓練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우리 나라 大學學生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 要望된다. 入學當時 도서관요람을 나누어 주고 한시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는 不充分하다. 도서관이 學生들이나 教授를 위하여 있다는 것과 分類目錄, 辭典體目錄에 對한 상세한 說明, 參考室利用, 參考圖書에 對한 知識, 定期刊行物利用, 二次資料의 利用法 等에 關하여 理解를 시키기 위하여 지금 보다는 더 많은 時間이 있어야 하겠고 더 많은 司書가 動員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 一年때의 教養科目中에 1乃至 2학점 정도의 正規 코오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對하여 過去에도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言及된 바 있지만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의 現實을 볼 때 이것은 至急을 要하는 문제이다. 新入生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고 있을 入學初에 하는 오리엔테이션만 가지고는 充分한 效果를 걸우지 못할 것이다.

### 2. 資料 확보의 強化

文教部에서 作成된 이른바 基準令에 明示된 大學의 藏書數는 藏書를 많이 확보하라는 激勵의 意味外에는 別로 意義가 없다. 그것과는 別途로 大學에서 圖書館에 더 많은 投資를 하여 國內외의 資料를 많이 備置하여 教授들이나 學生들의 不平을 덜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外國에 比하여 우리 나라 大學當局은 圖書館投資에 인색한 印象을 준다. 圖書館奉仕의 滿全을 期하기 위하여 우선 藏書量의 增加가 先決問題이다.

여기서 말하는 藏書란 勿論 數的인 것만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合理的인 收書計劃에 따라 選擇된 資料를 意味한다. 우리가 外國圖書를 購入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對하여 圖書館協會나 大學當局의 格別한 努力이 要望된다.

### 3. 學術雜誌의 確保

外國의 專門學術雜誌 輸入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教授들의 關心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 以上 보다 積極的인 姿勢로서 이 문제가 解決되었으면 한다. 이 문제를 더 容易하게 解決하는 方案으로서는 모처럼 擡頭되고 있는 圖書館相互協助의 機構가 하루 빨리 解決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學術雜誌의 收書의 分擔 그리고 相互利用의 체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二次資料의 強化

大學에 있어서의 Research에 필요한 學術雜誌에 對한 索引, 抄錄 等의 二次資料가 豊富하게 갖추어져서 資料의 效果的인 利用을 도와주어야 하겠다. 몇몇 大學圖書館을 除外하고는 大體로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은 二次資料에 對한 意識이 稀薄한 것 같다.

### 5. 參考室的 擴充 強化

參考室에는 參考圖書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優秀한 參考司書가 있어야 한다. 參考司書는 參考室을 지키는 司書가 아니라 參考奉仕를 하는 專門의 參考司書이어야 한다. 外國에서는 主題別 參考司書가 있어서 教授들과 對等한 對話를 나눌 수 있는 곳도 많다. 大學圖書館에서 가장 重要한 포지션은 參考室이라고 할 수 있다.

### 6. 定期刊行物の 複寫奉仕

圖書館에서는 大體로 定期刊行物을 貸出하지 않는 것이 通例이다. 옛날과 달라서 定期刊行物の 利用度가 높아짐에 따라 Copy Service 없이 貸出만 억제한다는 것은 無理다. 大學마다 性能이 좋고 複寫 Cost가 낮은 複寫機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圖書館相互間의 協力體制 위에 이러한 Copy Service가 進行될 때 大學圖書館의 價値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7. 館外貸出的 實施

아직도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에게 館外貸出이 許容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圖書館奉仕 以前의 이야기다. 本來 Circulation이란 用語는 館外貸出을 意味하고 있다. 내가 아는 限 館內閱覽이란 것은 用語조차 없는 것이다. 英國같은 나라에서는 County Library에서 Counter와 書架만 있고 閱覽床이 없는 圖書館이 許多하다. 多少의 副作用이 있다하더라도 적

(19 페이지에 繼續)

- 3)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참고봉사의 중요성  
김세익(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4) 교양학부 과정에 도서관학 강의의 필요성  
이규범(부산교육대학도서관장)

- 라) 인문 사회기관 분과  
김경일(중앙교육연구소 도서관실장)  
안철수(아시아문제연구소 도서관실장)

다. 학교 도서관

- 1)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  
조기홍(대전 성모여자중학교 사서교사)
- 2) 자율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 운영  
윤영길(동덕여자중고등학교 사서교사)
- 3)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을 돕는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이순규(하양국민학교 교장)
- 4)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선  
조재후(부산시교육위원회 장학사)

라. 특수 도서관

- 1) 정보 유통의 체계화 방안  
김종희(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수집과장)

※ 각 분과별 사회자 및 보고자

- 가) 과학 기술 기관 및 기업체 분과  
박계홍(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관실장)  
김덕훈(원자력연구소 도서관실장)
- 나) 은행 및 신문사 분과  
변홍선(중소기업은행 도서관실)  
김동훈(중앙일보사 도서관실)
- 다) 정부 및 준기관 분과  
이철규(국회도서관 열람과장)  
김원기(국방대학원 도서관장)

11. 유의 사항

가. 주제 발표

- 1) 주제 발표는 1인 50분 이내로 한다.
- 2) 주제 발표자는 발표내용을 「도협월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원고지(200자)에 써서 대회 개최 2주일 전에 협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후 처리

각 대회 주무위원은 대회사진, 회의록, 참석자 명단을 대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특수도서관대회의 의제발표자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각 분과에서는 같은 사항을 해당 분야와 연관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 1) 정보의 수집
- 2) 상호 대차
- 3) 공동 목록 작성
- 4) 정보의 배포

라. 시·도별 학교도서관 현황보고

보고는 15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한다.

※ 시간을 엄수해야 하므로 보고 내용을 절약할 것.

( 5 페이지에서 繼續 )

어도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에서는 敎授뿐 만 아니라 學生들에게도 自由로운 館外貸出이 實施되어야 한다.

8. 學部圖書館과 研究圖書館

자세히 살펴 보면 大學에서 敎授들이나 大學院 學生과 學部 學生이 그 圖書館을 利用하는 傾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學部 學生을 위하여는 學部圖書館, 그리고 敎授나 大學院 學生을 위해서는 研究圖書館을 마련하는 것이 美國같은 先進國家의 一般常識으로 되어 있다. 學部도서관은 完全開架制이며 어느쪽이나 하면 學校圖書館에 가까운 것이고 研究圖書館은 그야말로 Research 爲主의 도서관을 만들고 Carrel같은 것을 더 많이 確保하고 있다. 重複되는 것도 있지만 藏書構成에도 많은 差가 있다. 우리나라 形便에서는 이런 것이 곧 實現될 可望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世界的 潮流를 外面만 할 수도 없다. 지금부터 이러한 時期

에 對備하는 圖書館運營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9. 圖書館設施의 改善

우리 나라 몇몇 大學圖書館은 世界的인 水準에 별로 뒤지지 않은 施設을 가춘 데도 있기는 하나 많은 圖書館이 利用者를 위한 一般的 施設의 未備가 눈에 뜨인다. 化粧室이 없는 圖書館, 있어도 못쓰는 곳 食堂이나 흡연실이 마련되지 못한 곳이 大部分이다.

圖書館을 利用者가 長時間 있어도 別로 不便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미시건大學, 學部圖書館은 閱覽室에 재떨이가 놓여 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버리고 또 그것으로서 圖書館을 離脫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圖書館內에서 모든 자갈구레한 일이 다 될 수 있겠끔 施設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冊과 書架와 資料에만 關心을 가지는 이런 思考方式이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에서 많은 사람이 生存할 수 있게 시설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